



1



2

- 1 벽면 예술 작품들과 더불어 큰 창 너머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일구 공간에는 비아비주노(Viabizzuno)의 미니마(Minima) 테이블 조명들을 매칭했다.
- 2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 방식을 고려해 연출한 2층 거실 편히 쉴 수 있는 까시나의 밀로에(Miloe) 소파와 가족이 같이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막실토의 '실로스(Xilos)' 테이블, 까시나 이브(Eve) 의자를 두었다.

고급 주택가와 대서관들이 모여 있는 멕시코시티의 로마스 데 차푸테펙(Lomas de Chapultepec)에 위치한 아데아체 하우스(AdH House)는 강렬한 색상과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정의해온 일반적인 멕시코 스타일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선과 면으로 공간을 감각적으로 풀어내 오히려 눈에 띄는 곳이다. 집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미술 애호가인 가족의 모던한 취향을 담아 디자이너가 일관되게 구현한 질서가 흐른다.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미니멀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 건축가 겸 산업 디자이너인 프란세스크 리페(Francesc Rife)가 전체 설계와 디자인을 맡았다. "먼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내부 설계를 논의한 후에 전체 설계와 외부 건축 디자인을 했을 만큼 세 자녀와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한 집이에요. 가족들이 낮 시간에 다 같이 쉴 수 있는 실내외 공간, 저녁 시간을 함께 즐길 거실, 아이들끼리 놀기 좋은 거실, 손님 초대에 적합한 파티룸으로 구성된 4개의 공동 공간과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을 분리해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실제 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부분은 부부가 모은 예술 작품들과 공간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족의 사생활 보호였어요." 집에 들어서면 바로 입구에서 계단과 이어지는 홀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볼륨감 있는 이반 나바로(Iván Navarro)와 다비드 로드리게스 카바예로(David Rodríguez Caballero)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천장의 채광창과 이어지도록 특별 제작한 펜던트 조명을 달아 공간의 미감을 살렸다. 부부의 안목으로 선택한 예술 작품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집의 모든 공간에 나누어 배치했다. 아울러 어디서든 작품을 감상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맞춤형 디자인 가구와 비아비주노, 파올라 렌티(Paola Lenti)의 조명 등을 선택했다. 또한 내부 공간을 분리해주는 요소로 활용한 격자로 이어지는 시스템 디자인은 기능적이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이 돋보인다. 외부로 드러나는 길고 큰 창에도 알루미늄 소재로 이 디자인 모티프를 적용해 집 전체가 통일감이 느껴진다. 이는 사생활을 보호해준 물론 공간의 빛도 조절해준다.

무엇보다도 프란세스크 리페 특유의 세심한 디자인은 지하와 지상 총 3개 층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계단과 테라스에서 빛을 받는다. "계단은 단순히 보여도 만나는 모든 공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자재와 컬러에 신경 쓴 곳이에요. 상부에 금속을 더해 간결하게 마무리했지요." 안온한 분위기의 야외 테라스는 초목이 반기는 정원으로 이어진다. "뉴트럴 톤의 천연석을 깔 테라스 바닥의 끝은 하늘을 환영하는 물을 만나게 되어요. 각기 다른 자연의 물성을 함께 배치해 집의 균형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매일 시시각각 다른 하늘이 물에 반사되어 자연을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아데아체 하우스는 예술 작품과 함께 정교하게 디자인한 미감이 흐르는 다섯 가족을 위한 안식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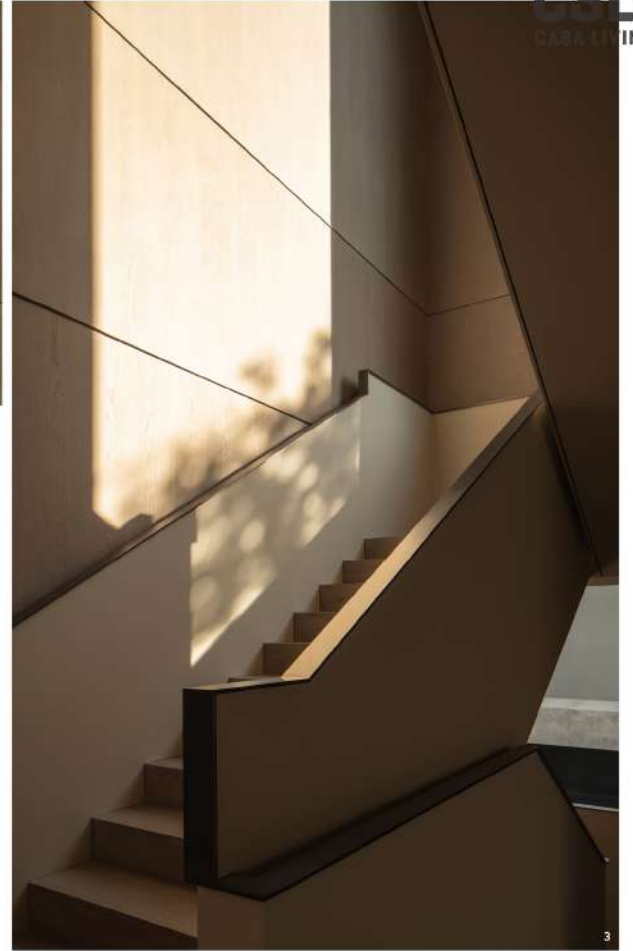
1 토프 그레이 컬러의 포인트(Point) '위브 스윙'(Weave Swing) 그네 의자와 그린 컬러의 파올라 렌티 알체어, 테이블을 함께 두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2층 테라스.

2 침대에서 창 너머 자연을 감상하며, 예술 작품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디자인한 부부의 침실. 모던한 디자인의 롤테나맨시 침대, 사이드 테이블, 벤치와 심플한 비아비주노의 로이(Roy) 조명을 배치했다.





82



- 1 지하층은 게스트가 방문하면 시간을 보내는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와인 셀러, 피트니스가 이어진다.
- 2 벽난로 대신 천연석 바닥을 한 층 올려 황동 소재 수직 난로를 설치했으며, 자연스럽게 빛이 퍼지도록 브루키스(Brokis)의 '라이트라인(Lightline)' 조명을 두어 마무리했다.
- 3 상부에 금속을 더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간결하게 마무리한 계단. 계단과 만나는 3개 층의 모든 공간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했다.

# 공명하는 일관된 디자인 언어

간결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아데아체 하우스(AdH House)는 부부의 이니셔티브를 따서 명명했다. 현대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가족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아 구현한 내밀하고 감각적인 공간이다.

에디터 구민정 포토그래머 다비드 사르조스(David Zarzoso)  
사진 제공 프란세스크 리페 스튜디오(Francesc Rifé Studio)



- 1 물성이 다른 건축 자재를 어울려 선과 면으로 그려낸 외관이 돋보인다. 가족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2개의 풀럼이 이어진 형태로 집을 설계했다.
- 2 2층 큰 창에 알루미늄 소재의 격자형 이중 시스템 디자인을 적용해 사생활을 보호해준은 물론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준다.
- 3 테라스 바닥 끝에 하늘을 환영하는 물이 머물도록 디자인해 자연을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